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조간
	담당자	최경수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044-550-4063, choi@kdi.re.kr) 박지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044-550-4081, jwpark@kdi.re.kr)
	배포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2: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본 자료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동시 배포됩니다.

KDI-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국회경제정책포럼 공동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

-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0:00~12: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KDI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국회경제정책포럼

□ KDI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공동으로 10월 21일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공동 조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

-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결과, 청년층의 88.4%는 서비스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 청년층의 50.6%는 본 법안의 시행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13.6%의 청년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그렇다 50.6%, 보통이다 35.8%, 그렇지 않다 13.6%

- 토론회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결과 발표와 최경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
- 최창훈 前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청년의 80%는 행정, 콘텐츠, 보건,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전체의 절반 이상(55.1%)이 서비스산업 부문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적지원 기반 마련'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
- 최경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 토론회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준경 KDI 원장,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 서한석 (주)직토 CFO,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단장, 최경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첨 부 1.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결과**

❖ **첨 부 2. 프로그램**

❖ 첨부 1.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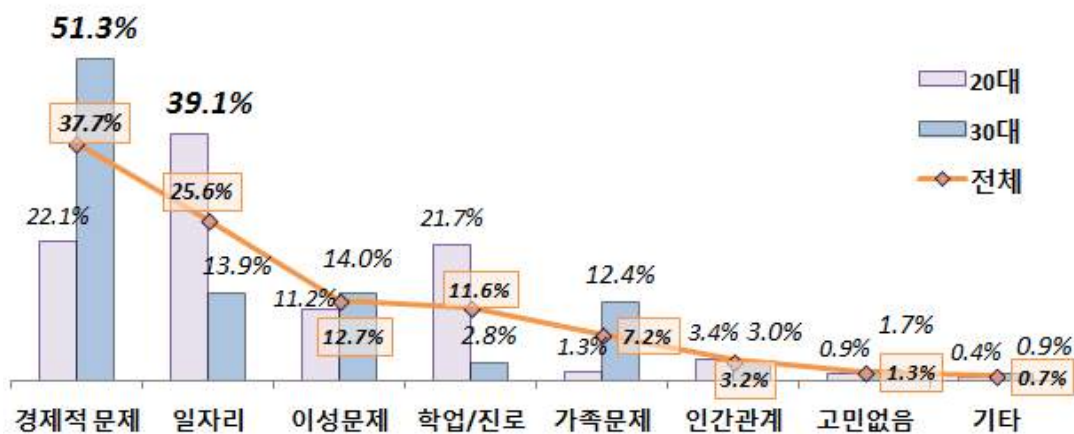
조사대상	전국 만 19~39세 1,000명 연령별: 20대 466명, 30대 534명 / 지역별: 수도권 527명, 비수도권 473명
조사기간	2015년 10월 2일~6일(5일간)
조사기관	KDI경제정보센터 · 마크로밀엠브레인(웹조사)
표본오차	±3.1%p, 95%신뢰수준

2. 일자리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문제'(37.7%)와 '일자리'(2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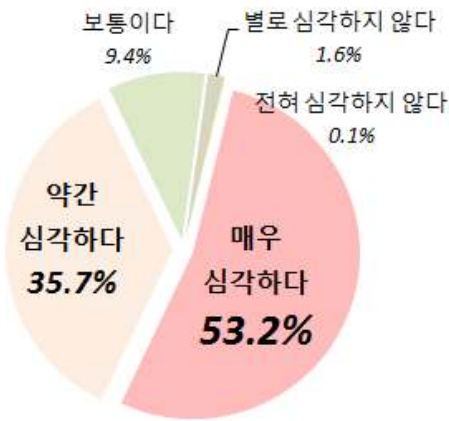
○ 특히 20대는 취직·이직 등 '일자리(39.1%)'에 관한 고민이 가장 많았으나, 30대는 채무·주거비·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51.3%)'에 관한 고민이 많음.

[현재 가장 큰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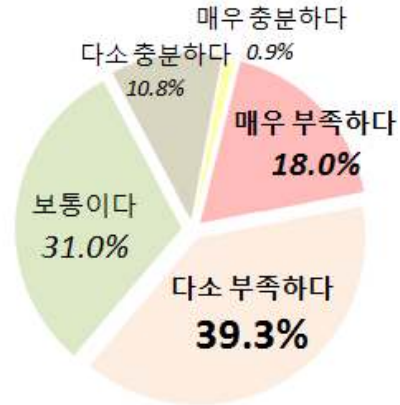


- 청년층의 88.9%가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57.3%)고 지적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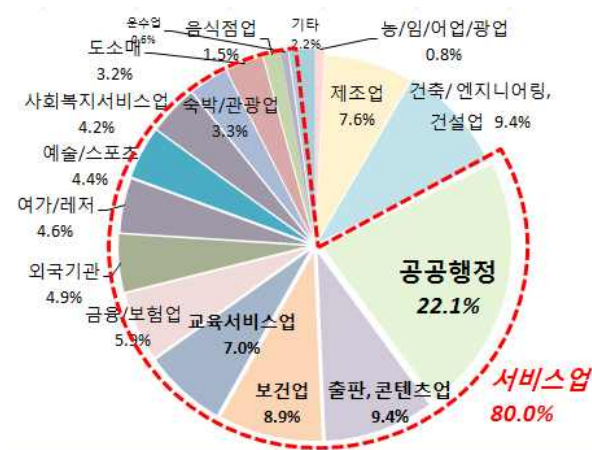


[희망하는 일자리 분야의 양질 일자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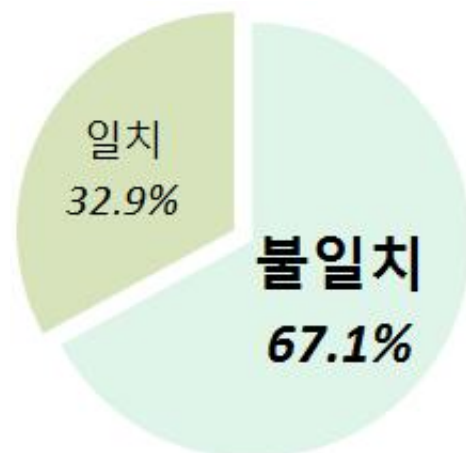
- 청년층은 행정, 콘텐츠, 엔지니어링, 보건, 교육, 금융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80.0%)하나, 청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67.1%는 희망 직종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



[현재 직종 분야와 선호분야 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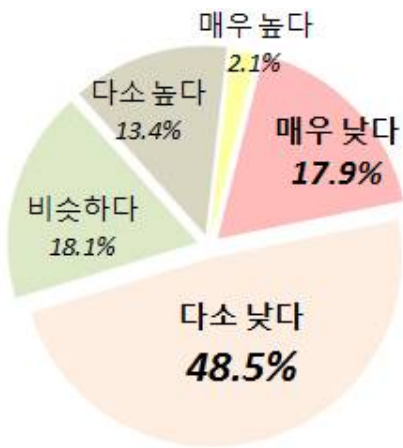
base = 직장인, 개인사업자 717명



3.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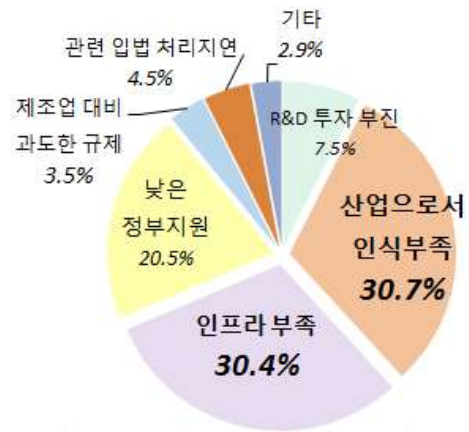
□ 청년층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다 (66.4%)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30.7%)과 인프라 구축(30.4%)이 필요하다고 응답

[선진국과 비교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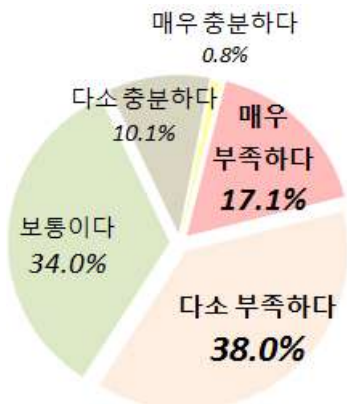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은 이유]

base =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한 6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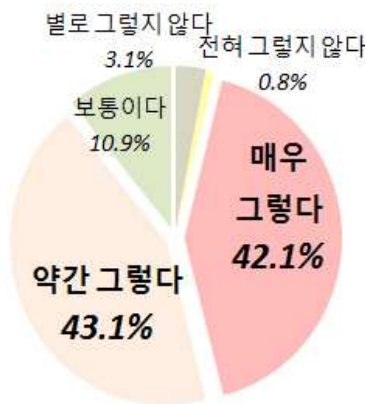


□ 청년층의 절반 이상(55.1%)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85.2%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구체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 (32.3%)'과 '법적 지원기반 마련(30.0%)'의 지원 정책을 강조함.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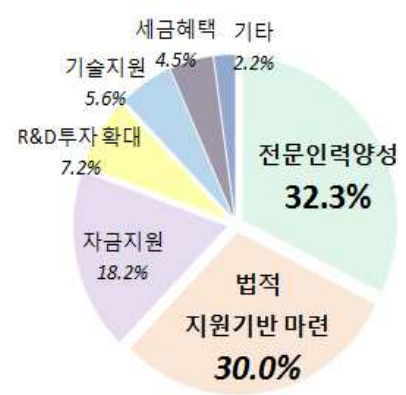


[서비스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 필요성]



[구체적인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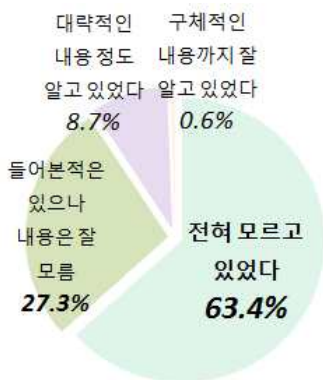
base = 서비스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8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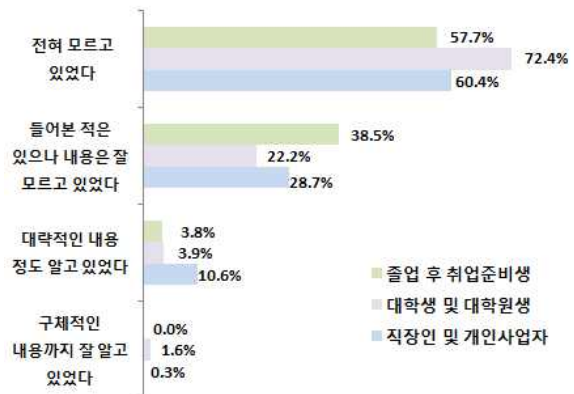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는 매우 낮아, 응답자의 63.4%가 모르고 있었으며 아는 비율 또한 9.3%에 그침.

○ 향후 취업을 앞둔 2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통 활동 강화가 요구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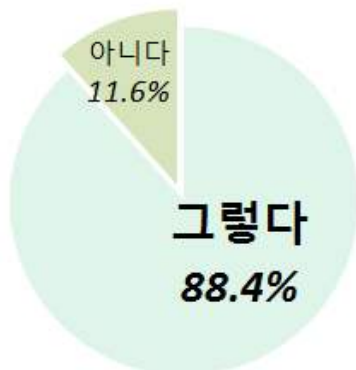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직업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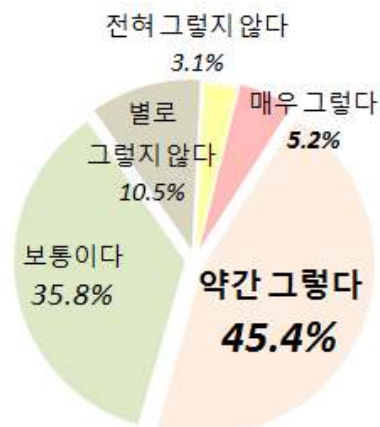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이 필요(88.4%)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50.6%)할 것으로 기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한 후 도입 필요성을 조사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도입 필요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시행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 첨부 2.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15	개회사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축사 김준경 KDI 원장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10:15~10:30	발표 1.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최창훈 前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10:30~10:50	발표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향 최경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10:50~11:40	토론. 서비스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좌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패널 최창훈 前 홍익대학교 학생회장 서한석 (주)직토 CFO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단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